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의 지속 추진을 위한 울산 상공계 입장

최근 우리 조선업은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친환경·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ASGA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업 협력 기회 확대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유례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공정 효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된 숙련 인력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 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산 광역형 비자는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에 설치된 인력양성 센터를 통해 직무 및 한국어·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중 우수 인력을 선발·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 인력 유입이 아닌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준숙련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이러한 인력 확보 체계는 향후 고난이도 공정이 요구되는 미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울산 광역형 비자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 모델로 숙련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전제로 한 인력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노력입니다.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의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인력을 선발하고 추천하는 시스템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울산 광역형 비자는 기존 외국인 고용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외국 노동 인력 공급 확대가 아닌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울산상공회의소는 산업 현장의 현실과 국가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면서 지역 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2026. 3. 17.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윤철